

강원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강원대학교 가족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원대학교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은 교육연구 기능과 기초학문 보호 육성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순환 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대학은 혁신적 주체로서의 책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간의 민주적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며, 새로운 교육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강원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미래비전을 통해 고등교육의 핵심 역할자로 발돋움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춘천 지역혁신·포용성장 거점 / 바이오헬스케어·문화산업 육성
→ 2022년까지 500억원 투입 「플랫폼 혁신센터」 건립 / 첨단기업·창업지원센터 유치
→ 지자체 협업 강화·강원열린군대 등 연계 대한민국 중동부권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척 그린에너지연구원] 2019년 12월 준공 / 에너지 특성화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 조성
→ POSCO, 남부발전, 강원TP, KIST 등 수소·에너지분야 10여개 기업·연구소 입주 예정
→ 복합스포츠센터 신축(156억원) / LH 행복주택 2021년 운영 등 문화·생활공간 제공

올 한해 우리 강원대학교는 지역거점 대학을 넘어서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첨단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추나무골이 지역혁신과 포용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춘천 캠퍼스 산학협력단지가 지난해 「KNU 스타트업 큐브」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지 1년 만에 강원도 최초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최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우리 강원대학교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무엇보다 전임 총장님들께서 캠퍼스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인 덕분에 약 2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만㎡규모의 대단위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총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캠퍼스 유희부지(66,5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는 ‘Lab-to-City’를 구현하여 지역혁신을 이끌어 내는 획기적인 Open-Campus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업은 1단계 「플랫폼 혁신센터」 구축에 476억원, 2단계 사업에 823억원 등 앞으로 6년간 총 1,29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바이오(BT), 정보통신(IT), 문화콘텐츠(CT) 등 첨단산업 기업과 창업지원기관 총 300여곳을 유치하고, 1,7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의 활성화와 직간접 고용창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동부권 최대의 미래첨단산업 혁신단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18만 군장병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강원열린군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신성장 모델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강원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척캠퍼스에 올 12월 지상 10층 규모로 준공되는 그린에너지연구관은 복합 휴게공간과 협동강의실, 최첨단 시청각 강의실 등 미래형 혁신 공간으로서, 7~9층에는 기업체 사무실 공간을 배정해 POSCO, 남부발전, 강원TP, KIST 등 수소산업·청정에너지분야의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정부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거점기지이자, 동해안권 산학연관 에너지 거버넌스의 실무 운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로서 강원 남부권(삼척, 동해, 강릉)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척캠퍼스에 **복합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 삼척시와 LH와의 협약을 통해 내년도에 행복주택을 착공해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문화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여 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과 동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대학교는 지역사회, 기업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신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도전정신과 창의력, 열정을 갖춘 젊은 벤처 창업자들의 요람이자, 청년 취·창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혁신선도대학사업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년연속 최우수 대학 △대학중점연구소·ICT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다수 선정

[글로벌 역량 강화] △「THE 2019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00위권 대학 첫 진입 △「2018 라이덴 랭킹」 국내 3위, 2017년 국내 10위보다 7계단 상승

[3주기 기본역량진단 선제적 대응] 학령인구 감소(2024년 12만4천명 급감) 위기 직면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 강화 →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대학의 역할 제시

지난 3년간 우리 강원대학교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대학의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감한 구조개혁과 역량강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혁신선도대학사업」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비판적 사고력, 소통, 창의력, 협업) 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년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 지원사업 시범(PILOT)사업」, 「대학중점연구소 및 ICT 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빠짐없이 선정되어 드높아진 대학의 위상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THE 2019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00위권 대학으로, 「2018 라이덴 랭킹」 순위는 국내 10위에서 3위로 상승하는 등 국외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 을 발표하면서 대학에게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2024년도에 대학입학정원 대비 12만4천 명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2022년까지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4개 정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이 스스로 학생정원을 관리하라는 의미로써,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총장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 대학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대학이 선도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더욱 강한 대학으로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원대학교 가족 모든 분들의 합심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장인 저부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각오를 다시금 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강원대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창의·협동형 인재 양성' 을 위한 장학금·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비 환원율] 2018학년도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 399.2% '거점국립대 3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 연간 1,630만원)

[재정 건정성] △ 2019년도 예산 규모 3년전(2016년)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
△ 재학생 92% 장학금 혜택(1인당 수혜액 평균 294만원)
△ 대학발전기금 모금액 2년연속 100억원 돌파 쾌거

[취창업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연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KNU커리어데이, 해외인턴십, 자매대학 교류 등 차별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 399.2%,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630만원으로 거점국립대 3위에 오르는 등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각종 정부사업 수주로 '19년도 예산이 3년 전보다 2백억 원 이상 증가되어 대학재정이 더욱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92%가 장학금(1인당 평균 294만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년 연속 1백억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와 LINC+ 사업단, 창업지원단 등 학내 취·창업 유관 부서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전공별 진로 상담부터 취·창업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NU 커리어 데이’와 ‘꿈 설계 상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54개 국가 266개의 자매대학과 교류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인턴십과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제적 소양과 전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국경 없는 캠퍼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 우수한 교육여건과 다양한 복지시설로 최상의 학습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숙시설] 기숙사 수용률 35.4% 전국 최고수준 / 차별화된 RC프로그램 운영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내년 완공

→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분야 특화 대학도시 중추적 역할 기대

[복지시설 확충] 2020년 제3학생회관 이어 미래도서관, 평생교육원 완공 예정

학생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시설 개선사업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BTL 생활관인 이룸관이 준공되면서 기숙사 수용률이 35.4% 규모로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선후배간 교류활동 확대를 위해 기숙사 생활과 외국어, 예체능, 봉사 등의 교육을 연계한 차별화된 RC(기숙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복합교육연구관**(지하 1층, 지상 3층)도 80억 원을 들여 강의실, 연구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내년에 선보이게 되며, 삼척캠퍼스로의 학과 이전 등을 통해 도계캠퍼스가 보건과학 분야로 특화된 대학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 제3학생회관을 시작으로 미래도서관, 평생교육원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되면, 대학의 교육·연구기능과 최첨단 IT기술이 어우러진 지식의 전당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5.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통일인재 양성] △DMZ 평화 국토대장정, 거점국립대 학생회 통일한국 워크숍 개최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대학원 평화학과 개설 등 통일교류사업 준비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방문('18.12) →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대표해 남북협력사업 제안

[남북교류·연구] 통일강원연구원·DMZ HELP 센터 운영 / 접경지역 지자체 협약 체결

우리 강원대학교는 지난 3년간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학이 ‘거점국립대 학생회 통일한국 워크숍’을 최초로 개최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때는 「DMZ 평화 국토대장정」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대학원 평화학과 개설 등 통일교류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하고 남북 대학 간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던 것도 통일한국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통일강원연구원과 DMZ HELP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지자체와 타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통일시대의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대학교 가족 여러분!

대학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학문과 지성의 장으로, 우리 사회의 10년, 20년 후를 보여주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주도적인 혁신으로 급변하는 사회를 리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실사구시’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강원대학교 가족 모두가 혁신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애정을 보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가족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강원대학교총장 김현영